

개인 문제 상담, ‘우리교회 목사님께 받고 싶다’ 67%!

많은 목회자, 사역자, 교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보통 기업의 경우 위기에 처하면 고객의 니즈 파악을 중심으로 위기 전략을 수립한다. 교회의 상황을 기업과 견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교회도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함께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설교, 교육, 심방, 목양 등 목회의 각 분야에서 교인이 느끼는 욕구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목할 결과로는 교인 10명 중 7명은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경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78%). 또한 개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교인 중 67%가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기를 원했는데 상담받은 자의 대다수가 ‘문제 해결에 도움 되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만족함을 나타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목회적 욕구에 대한 조사

조사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 출석자) |
|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 표본) |
|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 표본 추출 방법 |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 표본 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21일 ~ 10월 5일 (15일간) |
| 조사 주체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
| 조사 수행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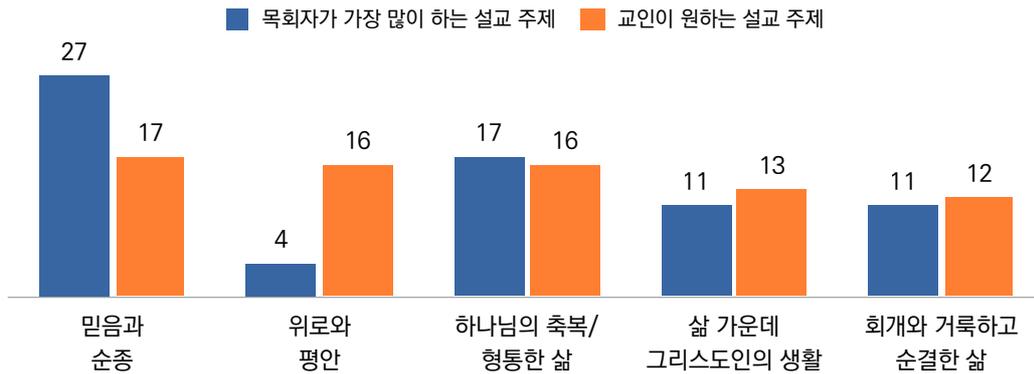
01

[설교에 대한 욕구]

원하지만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 '위로와 평안'!

- 출석교회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와 교인들이 실제 원하는 설교 주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물어 본 결과, '믿음과 순종'이란 주제의 경우 목회자가 설교하는 빈도가 교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많았다. 반면 '위로와 평안' 주제는 교인이 원하는 것보다 목회자의 설교 주제 빈도가 낮았다. 즉,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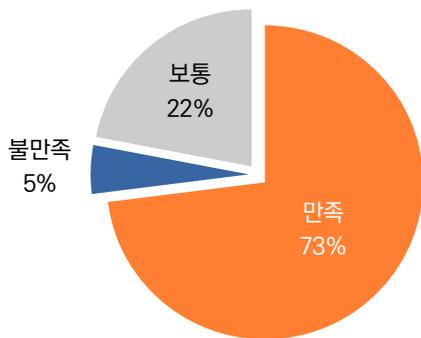
[그림]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vs 교인이 원하는 설교 주제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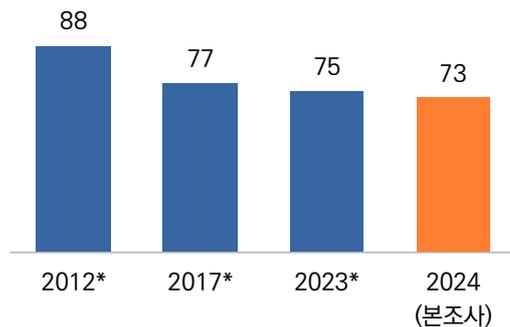
교인 10명 중 7명 이상, 출석교회 설교에 만족!

-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설교 만족도를 묻은 결과, 교회 출석자 4명 중 3명 가까이인 73%가 '만족'이라 응답했고, '보통' 22%, '불만족' 5%로 나타났다.
-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의 출석교회 담임목사 설교 만족도를 살펴보면 '설교 잘 함' 기준의 동의율은 과거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출석교회 설교 만족도** (교회 출석자)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 설교 만족도 추이* (교회 출석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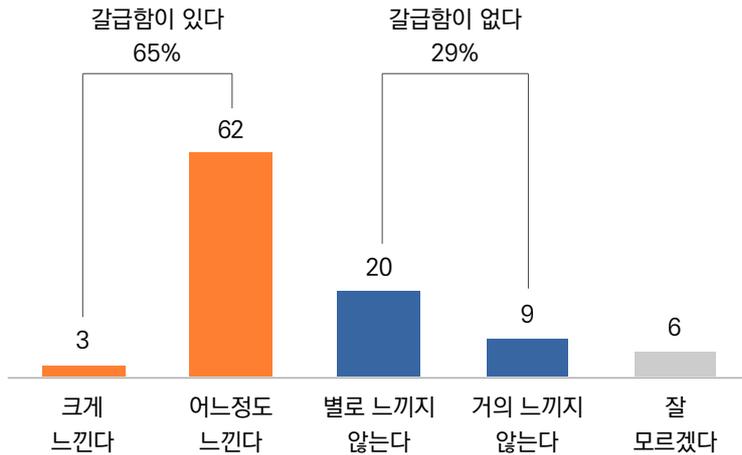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2, 2017, 2023 보고서 참조. '우리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 한다'에 대한 동의율 기준
 **5점 척도

02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 교회 출석자, '영적 갈급함 느낀다' 65%!

- 작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교회 출석자들을 대상으로 영적 갈급함을 조사한 결과, '갈급함이 있다' 65%, '갈급함이 없다' 29%로 교회 출석자 3명 중 2명 정도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이후 한국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적 갈급함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영적 갈급함 여부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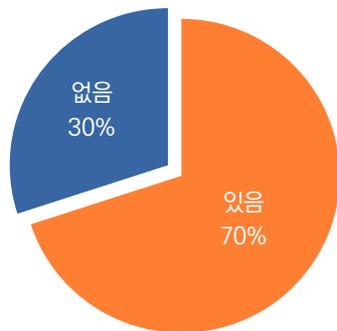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교인 10명 중 7명, 신앙 교육·훈련 받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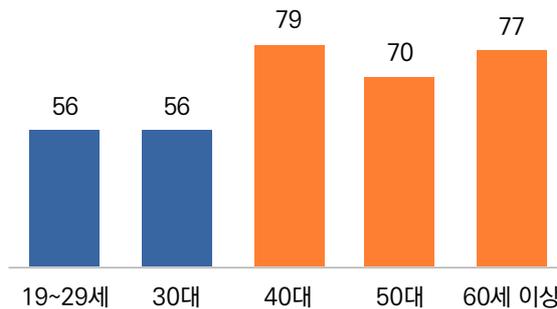
- 이렇듯 영적 갈급함 속에서 교인들은 평소 성경 교육 및 신앙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까? 교회 출석자의 70%가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은 평소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신앙 교육·훈련 욕구* (교회 출석자)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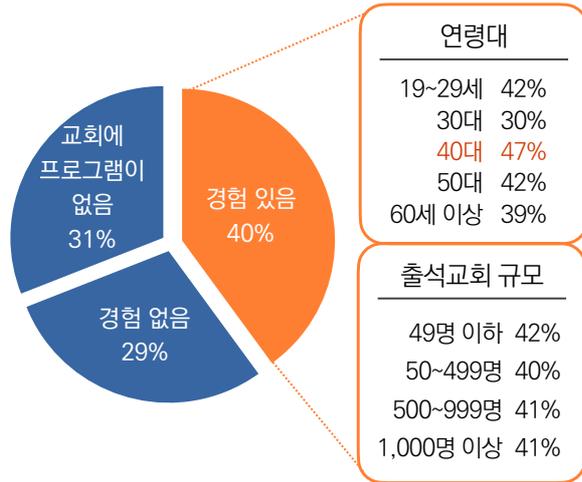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신앙 교육·훈련 욕구 있음' 비율 (교회 출석자, %)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의 만족도 매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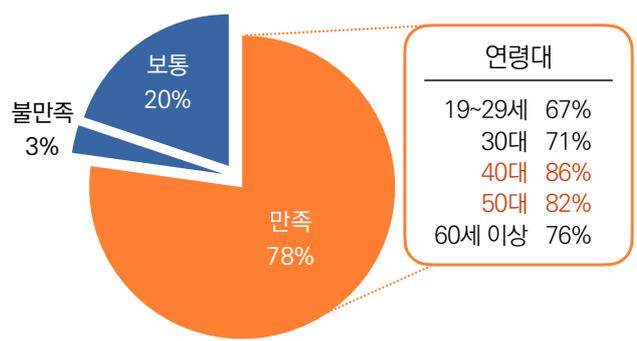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신앙 교육·훈련에 참여 경험을 묻은 결과, 전체 교회 출석자의 40%가 신앙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회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실제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의 만족도는 어떨까? 경험자의 10명 중 8명 가까이(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경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이다. 특히 40~50대 경험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출석교회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
(교회 출석자, 지난 1년 기준,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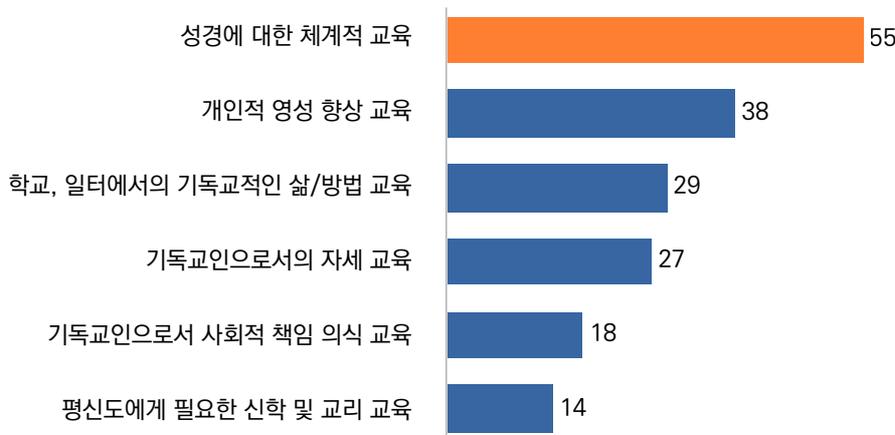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신앙 교육·훈련 만족도*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 %)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 주제, '체계적 성경 교육'!

-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은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적 영성 향상 교육' 38%,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 삶/방법 교육' 29% 등의 순이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자 본질임을 교인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 내용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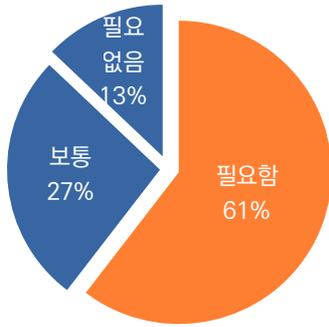
03

[심방/상담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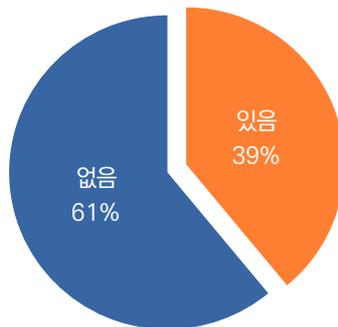
목회자의 심방, 필요하지만 받고 싶은 생각은 적은 편!

- 목회자의 심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필요함' 61%, '보통' 27%, '필요 없음' 13%로 교회 출석자 10명 중 6명이 심방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심방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9%만이 응답해 심방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받고 싶다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림] 심방의 필요성 인식* (교회 출석자)



[그림] 심방 받고 싶은 욕구**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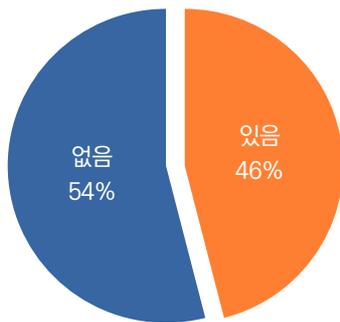


*5점 척도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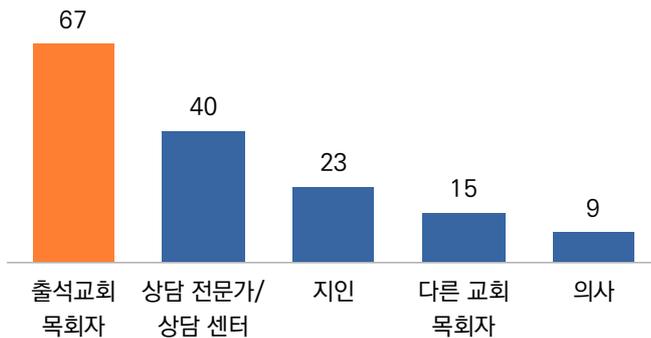
개인 문제 상담, '우리교회 목사님에게 받고 싶다' 67%!

- 개인 혹은 가정사로 상담받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교회 출석자들에게 물은 결과, 절반 가까이(46%)가 평소 상담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 욕구가 있는 교회 출석자'에게 희망 상담자를 물었더니 '출석 교회 목회자'가 1위(67%)로 '상담 전문가/상담 센터(40%)', '지인(23%)'보다 높게 응답됐다.

[그림] 개인/가정사로 상담 받고 싶은 욕구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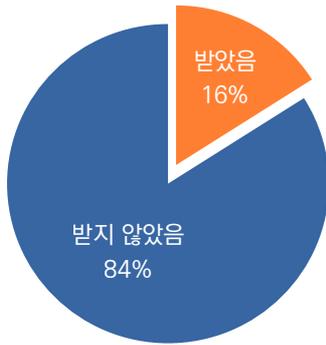
[그림]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사람 (상담 욕구 있는 교회 출석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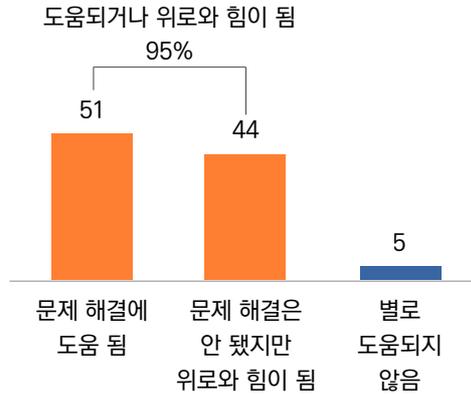
목회자와 상담한 교인 95%, ‘문제 해결에 도움되거나 위로받아’!

-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 받은 비율을 전체 교회 출석자 기준으로 보면 16%정도로 나타났다.
-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은 교인들은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상담받은 교인 대상으로 묻은 결과, 절반(51%)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됨’이라고 응답했고, ‘문제 해결은 안됐지만 상담만으로 위로와 힘이 되었음’이 44%로 응답해 상담 경험자 대다수(95%)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위로와 힘을 얻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 (교회 출석자)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의 상담 도움 정도 (상담받은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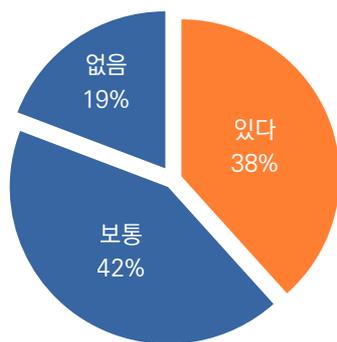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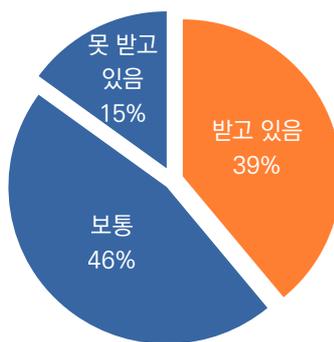
[목양에 대한 욕구]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관심·돌봄 받고 싶다’ 38%!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교회 출석자에게 물었더니 ‘있음’ 38%, ‘없음’ 19%, ‘보통’ 42%로 교인 10명 중 4명 정도만 목양에 대한 욕구를 보였고,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39%)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느끼는 정도*



*5점 척도

40대 교인, 목회자의 관심·돌봄 욕구 가장 크지만, 가장 덜 느껴!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와 느끼는 정도를 각각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목회자에게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43%), 실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34%)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교인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교회의 교인이 목회자의 관심·돌봄 욕구가 가장 높았지만(43%), 실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36%로 가장 낮았다.

[표]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vs 느끼는 정도 (계층별, 교회 출석자, %)

| | | 목회자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 목회자 관심·돌봄 느끼는 정도** |
|---------|-----------|---------------------|--------------------|
| 연령 | 19~29세 | 39 | 38 |
| | 30~39세 | 39 | 43 |
| | 40~49세 | 43 | 34 |
| | 50~59세 | 36 | 39 |
| | 60세 이상 | 37 | 41 |
| 출석교회 규모 | 49명 이하 | 40 | 55 |
| | 50~499명 | 35 | 37 |
| | 500~999명 | 37 | 39 |
| | 1,000명 이상 | 43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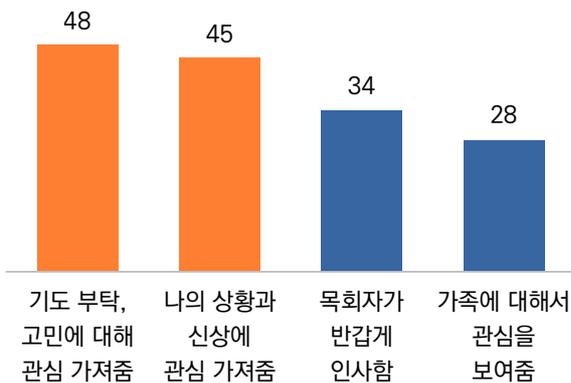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있음' 비율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받고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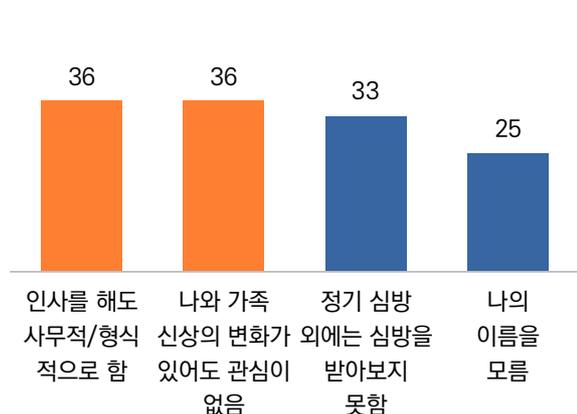
목회자가 '나의 고민과 상황에 관심 가져줄 때' 돌봄 받는다고 느껴!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기도 부탁, 고민에 관해 관심 가져줌(48%)'과 '나의 상황과 신상에 관심을 가져줌(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성도의 개인적인 차원에 구체적 관심을 보일 때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셈이다.
- 반대로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로 '인사를 해도 사무적/형식적으로 함(36%)', '나와 가족의 신상 변화에 관심 없음(36%)'이 가장 많이 꼽혀 목회자의 형식적/무관심한 태도를 아쉬워 하고 있었다.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있는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 (목회자의 관심·돌봄 못 받고 있는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05

[목회자에 대한 욕구] 교인들이 바라는 목회자,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인품/인격'!

- 출석교회 목회자의 자격 요건(1순위)과 충족도 평균을 응답 순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인품/인격'이 자격 요건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충족도는 4위로 나타났다. 반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은 자격 요건에서는 5위이나 충족도는 1위로 나타났다. 상위 5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자격 요건과 실제 충족 정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표] 목회자의 자격 요건 vs 충족도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 인품/인격 |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 설교 능력 | 기도의 능력 |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 |
|---------------------|------------|---------------|------------|-----------|---------------|
| 출석교회 목회자 자격 요건 순위 | 31.2% (1위) | 24.5% (2위) | 14.2% (3위) | 7.9% (4위) | 4.9% (5위) |
| 출석교회 목회자 충족도* 평균 순위 | 4.02 (4위) | 4.02 (4위) | 4.10 (2위) | 4.08 (3위) | 4.12 (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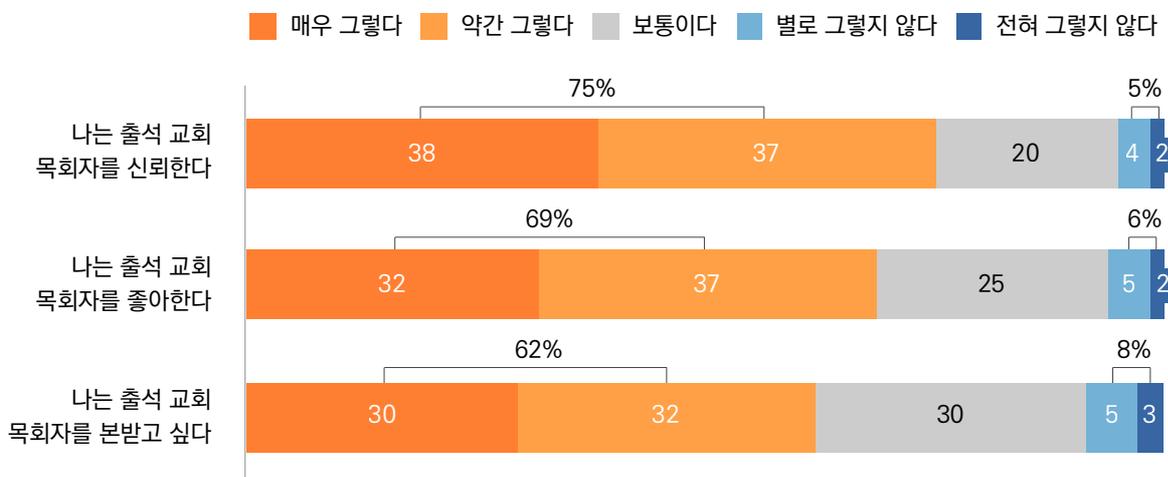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Note) 자격 조건은 순위, 충족도는 척도 문항으로 직접적 비교가 불가해 응답 순위로 비교 분석함

교회 출석자, '나는 우리교회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62%!

-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신뢰한다'가 75%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을 보였고 '좋아한다' 69%, '본받고 싶다'가 62%로 나타나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과 신뢰가 높음을 보여줬다. 특히 '매우 그렇다' 비율이 '약간 그렇다' 못지않게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신뢰한다'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좋아한다', '본받고 싶다'는 교회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 호감/신뢰도 평가 (교회 출석자, %)



종교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빠른 성장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와 기대 역시 변화해 왔다. 하지만 교인이 목회를 평가하거나 신앙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한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목회의 각 영역에서 교인이 느끼는 갈급함과 충족 정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이번 조사 결과는 교회와 교인 간 목회적 간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국 개신교인의 목회적 욕구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살펴보자면, 먼저 '신앙 교육과 훈련 욕구'이다. 교회 출석자 10명 중 7명(70%)이 평소 성경 교육 및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받고 싶은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개인 영성 향상 교육',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인 삶/방법 교육'이 높게 지적됐다. 교인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는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신앙적 영성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에서 성경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관된 신앙적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교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교인이 자신의 신앙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확인된 것은 '목회자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이다.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더니 '있음' 38%, '보통' 42%로, 81%의 교인이 보통 이상의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 교인들은 주로 '나의 고민과 상황에 목회자가 관심 가져줄 때' 돌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교인의 경우 상담받고 싶은 사람으로 '출석교회 목회자(67%)'가 오히려 '상담 전문가(40%)'보다 높았다. 교인의 돌봄과 관심 욕구는 교회가 단순한 예배의 장소를 넘어서, 교인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소그룹, 가정/일터 방문, 개인 상담 등을 통해 교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양과 돌봄은 교회를 신앙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의 장으로 만들어 교인들이 교회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앙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신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인은 적었지만 일단 경험한 교인의 경우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는 점이다. 출석교회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경험한 교인은 40%에 불과했지만, 경험자 10명 중 8명 가까이(78%)가 만족함을 표시했고, 개인사로 출석교회 목회자와 상담을 경험한 교인은 16%에 불과했지만, 경험자의 95%가 '문제 해결에 도움 되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하여 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40대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신앙 교육 훈련 욕구', '심방/상담 욕구', '관심/돌봄 욕구' 모두 40대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회의 약한 고리' 40대의 신앙 약화 결과를 두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세미나 제목은 '평신도가 보내는 목회 시그널'이었다. 신앙적으로 갈급한 교인이 보내는 시그널에 교회가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야 할 때이다.